

여는 글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고기복 이사장 2

KOVA ESSAY

- 내가 만난 외국인_김소희 4
- 토가족(土家族) 어린이들에게 한글을_김영모 7
- 아이들의 밝은 미소에 중독되어_송재영 11
- 화장실에서의 조우_이지현 15

INTERVIEW

- 해외봉사 사업의 과제_원희룡 의원 19
- 우간다 아이, 아이반의 눈빛을 기억하며_홍세나 팀장 23
- 내 기억속의 봉사단 생활_황필규 29

WHAT we Work

- 다문화인권정책포럼_하재웅 33
- 문화동반자들과 함께한 청계천 나들이_최진희 36
- 다문화 사진 공모전 38
- 자원봉사 대축제 40
- KOVA 다문화이해를 위한 국제협력특강_KOVA사무국 42
- HOPE SEED 장학금, 희망과 미래의 꿈이 됩니다. 44

CULTURE Story

- 라오스, 천사의 나라_최희선 46

PEOPLE N People

- 사이공, 뚜이화, 벤제 그리고 다시 서울로_이광렬 50
-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빌카밤바에 오세요_한 신 54

OPINION

- 제20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에 다녀와서_서영철 57

KOVA PROJECT 61

KOVA & KOICA News 66

OUR Membership 72

| KOVA 사무국 가족 소개 |

고기복 이사장, 서영철 사무국장, 강순 팀장, 전주연 간사



표지사진 :
윤선미 회원이 만난 베트남 어린이입니다.

발행일 | 2008년 6월
발행인/편집인 | 고기복 이사장
편집장 | 서영철 사무국장
편집위원 | 최진희 _ 취재
 원은정 _ 취재
 하재웅 _ 취재
 유진희 _ 디자인
 양희룡 _ 디자인
 구명숙 _ 교정

E-MAIL | office@kova.org
홈페이지 |
www.kova.org
싸이월드 |
town.cyworld.com/kova
(KOVA와 일촌 맺어주세요)



■ 고기복 이사장

넓은 벌 동쪽끝으로
옛이야기 지를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을은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향수(정지용)

나에게 '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서 그렸던 모습이다. 그리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질녘 언덕에서 큰 눈을 꿈벅 꿈벅거리며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안재동 시인의 '반추(反芻)'가 떠오른다.

저어기, 풀밭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는
누런 어미소 한 마리,

소는 황급히 풀을 뜯는 일이 없답니다
입으로 한번 삼킨 풀이라 해서
완전히 없어진 걸로 생각지도 않는답니다
-반추(反芻),(안재동)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광우병 괴담'이 나돌 정도로 시끄러운 세상을 살다 보니 순박한 눈동자를 꿈벅거리며 되새김질하는 소의 모습 어느덧 괴기스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며, '참 난감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반추란 소화기능이 약한 소와 같은 초식동물이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고 씹는 것을 말하는데, 인생에 있어서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성찰함을 의미하기도 한

다. 그런데 이 반추라는 것이 일종의 유혹이기도 한데, 흔히 군에 갔다 왔던 남자들이 떨치지 못하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군대 이야기'이고, '왕년에' 어땠어 떠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간은 반추의 쾌락을 즐기는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해외봉사단 활동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봉사단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피할 수 없는 유혹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 주며, 동질감을 전해주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봉사단원 활동을 이야기하며 못내 아쉬워하는 이도 있고, 후회하는 이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긴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한 이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기억이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해외봉사단원연합회 선후배 모두에게 반추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일상 같은 것이라면, 원망과 후회가 담긴 반추보다는 희망을 잉태할 수 있는 반추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우리에게 봉사단 경험을 반추함은 안재동 시인이 반추에서 말한 대로,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정한 반추의 쾌락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반이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같은 것
반이란 늘 우리에게 남는 절망 혹은
희망 같은 것
-반추(反芻),(안재동)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홈페이지 : www.kova.org

★ KOVA 소식지 <나눔과 섬김>은 연간 네 차례 발행하고 있습니다
★ KOICA청사와 함께 KOVA사무국 이전합니다.

| 전화 : 031-777-2690 | FAX : 031-759-5604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시흥동298) 제1연수센터 4층 A406

KOVА Essay



내가 만난 외국인

■ 김소희 / 우크라이나 18기 yamerong@hanmail.net

내가 만난 외국인이라...학창시절 우리 집에서 민박을 했던 일본 학생들, 엄마의 나라를 알아가겠다고 독일계 혼혈아, 발냄새가 아주 심한 거 빼고는 너무나 멋졌던 인도인, 매해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렛을 보내오는 캐나다인 할아버지...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외국인들을 나열하라면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올것이다. ^^* 외국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되어있다는 것이 아닐런지. 요즘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렵지않게 만나 볼 수 있는 외국인들 그들 속에 있는 나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름은 '막두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어여쁜 소녀이다. 내가 처음 이 소녀를 만난 곳은 고려대학병원에서였다. 2006년 11월에 우크라이나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난 시차적응이라는 핑계를 대며 말 그대로 시간을 죽이며 지내고 있었다. 그 때 KOVA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러시아어 통역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귀국만 하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탄탄해져 있을 것이라는 막연



한 기대감을 가졌던 나에게 그렇지 못한 현실들은 원래 자신감이 부족했던 나를 더욱 더 구석에 박히게 만들고 있던 시점인지라 당연히 나의 첫 대답은 "No"였다. 그러나 KOVA 간사님의 (나의 러시아의 실력도 모르면서) 끈질기게 붙들어주던 용기에 난 어렵게 "Yes"를 날렸고 그렇게 그 소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너무나 무뎠던 지난 여름의 어느날, 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막두나를 만났다. '척추측만증'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핏기라곤 하나 없는 얼굴과 앙상하게 말라있는 몸뚱이~ 그러나 나에게 미소 지어주는 막두나를 보면서 난 용기있게 "드라스트브이쎄"를 외칠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통역봉사는 시작되었다.

너무나 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던 막두나는 '선천성 척추 측만증'이었다. 척추가 120°나 굽어 잠을 자는 중에도 폐가 척추에 눌러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다. 더구나 지난 14년 동안 수술비 문제로 수술은 커녕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막두나의 아버지는 어렵게 한국으로 와서 도움을 청하였고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것이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수술이 불가능 했을 것이고 지금은 성공적인 수술 덕분에 한결 나아진 모습이라고 했



다. 14살 어린 나이로 그렇게 큰 고통을 힘겹게 견뎌낸 막두나를 보니 대견하고 또 대견스러웠다.

인터뷰가 끝나고 막두나의 완쾌를 빌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헤어지면서 대구에서 가져 간 인형(우크라이나에서 사 온 러시아어로 노래를 부르는 인형)을 주었더니 너무나 좋아했던 막두나의 모습은 아직까지 생생하다.

우즈베키스탄에 계시는 할머니와 가족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싶지만 자기는 한국에 살면서 공부하고 싶다며, 친절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막두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과 조그만 인연이라도 맺었던 외국인들 모두가 한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보았다.

마지막으로, 2년간의 봉사활동그냥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던 내 소중한 청춘의 시간들이 이렇게나마 또 다른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한다. KOVA



토가족(土家族)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 김영모 / 중국 20기 35기 matakim@naver.com

2007년 5월 이전에 있는 유네스코 훈련센터에서 5주간 한국해외 봉사단원 훈련을 받고 7월 8일 북경으로 출발했다. 나는 2004년 팀제 봉사단원으로 중국 강서성 임업국에서 봉사를 마친 후 이번이 두 번째 활동하는 터라 별 두려움이나 설렘도 없었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아쉬움이나 어리석음이 없이 좀 더 야무지게 잘 해 보자는 스스로의 다짐만이 있을 뿐이었다.

북경 KOICA 사무실의 알차게 준비된 적응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현지에서 중국어 학습과 각가지 체험 훈련을 거쳐 8월 5일에는 OJT(On the Job Training) 훈련으로 현지에서 2주간 활동기관체험을 하는 훈련이 있었다. 예전에 없던 아주 좋은 제도가 개발된 것 같은 느낌으로 북경에서 장가계 공항까지 2시간 반 동안 날아가 정각 16시에 도착하니 장가계 공항에서 보는 장가계 지방 풍경도 그 이름값을 보여주는 듯 일반적으로 봐왔던 풍경과는 색달랐다.

공항에 내려 한참 기다리니 한 분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자신이 '티엔수룡'이고 내 코워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좁은 산관 길 같은 도로를 속도도 못 내고 출렁이며 정

말 느긋하게 달렸다. 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우리나라 강원도 시골길과 흡사했고, 간간히 석회석 특유의 가파르게 솟아오른 산과 골이 깊은 산이 우리 것과 좀 다르게 느껴졌다. 계속 산골길을 달렸는데 간간히 밋 채의 가옥이 보일 뿐 너무나 적막한 산골이었다. 도시다운 곳을 한 번도 지나쳐 보지 못하고 4시간을 달려 어느 조그마한 촌락에 약간 화려한 집 앞에 차를 댔다.

그곳이 내가 앞으로 2년간 봉사활동을 할 후난성 창디스 스먼시엔 후핑산국가급 자연보호국인 것이다. 석문이라는 어감에 걸맞게 하늘 높이 치솟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계곡이 아찔하게 깊은 아주 깊숙한 산골이었다. 이같이 문명의 발달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연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이곳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전통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부엌과 돼지 울이 가깝고, 오물 냄새며 파리 모기들의 해충에 무방비한 생활을 하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나에게 중국어를 잠시 지도한 이곳 제 8중학교 한 선생님이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다 하기에 함께 가보니 너무나도 남루한 숙소였다. 모기가 많은 지역인데 방충망도 없고, 부엌도 따로 갖추지 않았는데 불편함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내가 할 임무는 호남성 명품차나무를 개발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이후 짧은 시간에 차나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행히 이곳은 명품 차(茶) 생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차 생산 조건은 해발 1,000m-2,000m 사이의 산간지대가 가장 적합한데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어서 희망적이었다. 북경 사무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나무 육종에 관한 현장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거창하게 국가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스스로 봉사할 일을 개발해서 그들과 가까워져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원들을 상대로 영어와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다. 월·수·금요일 한글과 영어를 지도하기로 하고, 토·일요일에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고 함께 등산을 다니기로 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를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정말 어린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은 내가 이런 계획을 구상하기 잘 했



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기뻐다.

중국인들은 자기와 무관한 일에는 지극히 냉소적이다. 자기에 관계된 일이라도 자기에게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단히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은 봉사자들에게 친절할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중국 사람들이 지극히 계산적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내가 본 중국인의 평가가 전부일 수 없을 것이다. 나도 단편적이길 바랄 뿐이다. 이러한 중국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게 한글을 지도하는 일이 상당히 도움 된다. 다행히 이곳 중국 각지에서 한국드라마를 봐온 사람들이라 한국과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 상당한 지식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친근감을 갖고 있다. 한글을 지도하다 보면 우리 한글의 구조적 과학성에 이들도 대단히 놀란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듣고서 표기하는 학생을 보면 내 스스로도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계몽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이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니 벽에 낙서한 것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했던 그 감정을 나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이 커다란 보람이 아닐 수 없었다. 2년이라는 봉사기간에 우리말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5명만 양성해도 대 성공일 것 같은 생각들었다. 한글을 배운지 3개월여 만에 내 집을 방문할 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간단한 문장과 상당량의 단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이 사랑스럽게 여겨진



다. 특히 어린이들은 한글의 구조를 익히고서 또박또박 한글을 읽어 나가는 것을 보면 봉사자 임무의 부수입(?)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다. 직원들인 성인들은 외국어의 중요성을 알고 공부 하지만 어린이들은 산골의 30-40분씩 걸어와서 한글 공부를 하는 애들이 더욱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된다.

내가 한글을 지도하며 얻어지는 소득 또한 많다. 야채며 고구마 감자를 주는 학부형도 있으며 특히 내가 타국에서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의 모든 불편이 어려움 없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내가 작은 선물(가르침)을 주니 그보다 더 크고 많은 되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값어치인 것 같다. 무엇보다도 스승과 제자 관계로 어우러지는 관계는 적대적일 수 없고 매우 친근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이곳저곳에서 어린이 들이 진라오스니하오(김선생님 안녕하세요?)라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이러한 관계와 존경을 받는 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의 일부분을 직접 체험하는 기분이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어렵게 자랐으며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는 내 자신에게 기회를 부여해 준 KOICA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KOVA



아이들의 밝은 미소에 중독되어

■ 송재영 / 스리랑카 20기 songsm3@naver.com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인가? 퇴근시간인가? 새벽인가? 아니면 식사 시간인가? 글썽... 나도 지금 생각중인데,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맘에 맞는 사람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

내가 스리랑카에서 가장 기다리던 시간은 오후 2시 반이었다. 나는 보통 오후 1시 좀 넘으면 개인 운동을 했다. 스트레칭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아령도 들고 했다. 그런데 2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아이가 있었다. 그 이름은 ‘디니띠’라고 하는 6살인 여자아이이다. 이 아이는 5살 후반부터 태권도 반에 들어와서 태권도를 배웠다. 수업은 3시부터이지만 거의 매일 2시 반이면 헬스장에 나타나서 체게 허리를 90도 구부리며 귀엽게 인사를 한다. “마스터~”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리곤 부끄러운 듯 재빨리 사라지고 5초 내로 다시 얼굴을 내민다. 그리곤 저와 대화를 시작한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모른다. 이뻐 죽겠다

이름이 ‘마히마’인 남자 아이는 8살이었는데 겁이 없고 애들 괴롭히고 때리기를



좋아하여 '홀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실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치고 있던 대학생 형들이 태권도 하는 것을 보고 겁도 없이 혼자 와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맘이 하도 기특하여 이 아이 한 명을 지도하기 시작한 것이 어린이, 청소년반의 시초였고 나중에는 30여명이 되었다. 이 아이는 태권도를 하는 중에 가끔 거짓말도 하고 수업도 자주 빼먹고 했기에 혼도 많이 내고 매도 들었었다. 한 번은 미래 희망에 대해 얘기하던 중 이 아이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고, 기회가 싶어서 "경찰은 거짓말과 나쁜 짓을 하는 도둑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이 되려면 정직해야하고 몸도 건강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정직하러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면 틀림없이 경찰이 될 수 있단다"라고 얘기해주었다. 마히마는 그 후로 집중력과 태도가 전과 달리 좋아졌다. 저는 내심 기뻐고, 뻘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전과 같이 심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악동이다. 사랑스런 악동 '마히마'. 어린이반 태권도 첫 제자,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이이다.

항상 웃는 아이 '사치니'. 여자아이로 13살인 아이이다. 이 아이는 나를 항상 기쁘게 만들어 준다. 왜냐하면 항상 수줍은 미소를 띠고 인사를 한다. 웃는 얼굴이 너무 이쁘다. 세상이 다 환해진다. 그런데 운동할 때는 집중력이 놀랍다. 비록 이 아이는 운동을 늦게 시작해서 반년 정도 밖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너무나 생각나

는 아이이다.

금메달을 딴 '아마란두'. 14살의 나이로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14-17세 부분에서 1등을 했다. 나이는 14살이지만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재목감이 라고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반 중에서 태권도 급도 가장 높았고 잘해서 주장이 되었다. 이 아이하면 맘이 생각난다. 항상 땀을 흘리며 열심히. 더 많이 가르쳐주고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외에도 운동을 함께한 아이들은 많다. 다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다. 보고싶은 아이들이다. 내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은 바로 3시에 만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었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아 외롭지 않았다.

고아원의 아이들도 생각난다. 40여명 이상이 함께 지내는 '아반띠데위'라는 여학생 고아원이다. 이곳에는 갓난아기부터 18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어머니나 아버지만 계신 아이들, 부모가 있지만



이혼하거나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국가 지원비 월 1인당 3천원으로 사는 아이들..... 그런데, 고아원하면 어두운 얼굴이 생각나는가? 그건 오해이다. 물론 깊은 곳에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두운 면들이 가끔 나타나지만 너무나 밝고 이쁜 아이들이다. 나와 거의 2년 가깝게 만나면서 서로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물었고 주말에 내가 가게 되면 항상 ‘송 오빠~’ 라고 말하면서 여러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서 밝은 얼굴로 대문을 열어준다. 항상 기쁘게 맞아준다. 내가 왜 이 곳에 2년 가까이 찾아 갔을까? 스리랑카에서 떠난 후 깨달은 것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줄 것을 들고 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갈 때마다 큰 사랑과 기쁨의 미소를 받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누라다푸라라는 지역에 혼자 지내는 나를 위로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아원의 아이들이었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아이들이 어두워 보인다? 천만의 말이다. 어두웠던 것은 내 자신이었다. 이곳 아이들은 천사들이다.

어쩌면 내가 이번에 제자들과 고아원 아이들에 대한 글을 쓴 이유도 너무나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하고 싶어서였겠지. 비행기표가 생기면 훌쩍 다녀오고 싶기도 하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내가 가진 작지만 큰 소망이 있다. 그것은 어려운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사랑하는 맘을 전해주는 것이다(머리를 쓰다듬으면 안되는 나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감사하게도 스리랑카에서 그 첫 소망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게 중독인가 보다. 한국에 오니 다시 가서 아이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싶다. 생각해보니 이 중독의 원인은 아이들의 밝은 미소인 것 같다. 글썄.. 앞으로 이 독에 중독된 채로만 살고 해독은 하지 않을 것 같다. KOVA



KOV A Essay

화장실에서의 조우

■ 이지현 / 중국 21기 decaprio101@daum.net

오늘 중국에서 나의 제자였던 학생과 오랜만에 메신저에서 만났다. 이런 저런 말 끝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선생님, 단동에 새로운 기차역이 생기고 있어요. 단동에는 지금 아주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아! 떠나 온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떠난 뒤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다니 기분이 새삼스럽다.

나의 부임지는 중국 단동이었다. 북한말, 조선족말, 한국말, 중국말이 번갈아가며 심심치 않게 들리는 곳, 압록강 건너편으로 북한 신의주가 훤히 보이는 곳, 바로 단동이었다. 글을 쓰려고 단동의 2년 남짓했던 생활을 돌이켜 보니 유쾌한 기억들이 많이 떠오른다. 글로써는 다 채울 수 없는 그 공간과 추억의 얘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화장실 에피소드 한 자락을 들춰본다.

내가 부임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학교는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 보수 공사를 했다. 한국어과 건물 회칠을 새로 하고 화장실도 새로 개, 보수를 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화장실들이 다 그러하지만 그 동안의 화장실이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았고, 문도 워낙 낮았던 터라 기대가 나를 컸었다. 그리고 개학을 하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화장실에 문을 달지 않은 채로 타일만 새로

깔려 있어서 아직 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생각을 하고 수일을 보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이미 공사가 완벽히 끝난 화장실이라는 것이다. 중국에는 화장실 문이 없는 곳이 워낙 많고 그것이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는 하였지만 왜 있던 문마저 없애 버렸는지 어리둥절했다. 학과에 있는 조선족 선생님께 “왜 문을 떼어 버렸어요? 교사 화장실도 따로 없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게요. 문 값 아끼려고 그랬나. 화장실 갈 때마다 양산이라도 들고 가서 문 대신 펼쳐 놓으세요.” 라며 우스갯소리를 하셨다.

그리하여, 불일이 급해도 참고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해결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은 수업 중에 물을 너무 마셨는지 불일이 급했다. 수업 중이니 학생들이 없었지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주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들어가려는 순간 첫 번째 칸에 사람이 언뜻 보여서 마지막 칸으로 쭈욱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선가 “선생님” 하고 우렁차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헉, 하필 내 학생이라니!’ 그래도 화장실 에티켓을 지키려고 그쪽은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간단히 ‘어?’ 라고 대답했는데 이 학생이 또 정중히 꾸벅 인사까지 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며 90도로 허리를 구부리는 학생의 인사를 안 받아 줄 수도 없어서 그쪽을 돌아보았다. 나의 어여쁜 제자는 그렇게 만나쳐 상태로 서서 생글거리며 나에게 인사를 했다. 아주 적나라한 그 상황에서 나는 어색하게 대답해야만 했다. “어? 아아녕?” 이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기도 어색한 상황이고 워낙 급했던 지라 마지막 칸으로 가서 신나게 불일을 보는데 그 학생이 나에게로 왔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와중에도 불일을 보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아무리 뒷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편한 중국이지만 명색이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화장실 칸이 계단 두, 세 개쯤 되는 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녀의 눈의 위치와 나의 자세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는 실로 위력적이 아닐 수 없었다. 당황한 채로 그냥 그 자세로 앉아 있는데 나의

또 그 어여쁜 제자가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환하고 순박한 웃음을 지으며, 나와 채 1미터도 되지 않은 거리에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나는 움직여 지지 않는 오른손을 간신히 올리며 말했다.

“그 그래. 자잘가.”

내가 평소에 예절과 인사교육을 너무 시켰나 싶어 그 순간만큼은 내 혀를 깨물고 싶었다. ‘수업시간에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너무 말했나...그래 순진한 나의 제자들에게 융통성을 안 가르쳤구나.’ 나는 그 길로 수업에 돌아가 나의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부탁했다. 물론 좀 전의 그 학생이 그 반에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늘 수업을 들은 우리 반 학생들이 이 에티켓을 멀리멀리 퍼뜨려 주길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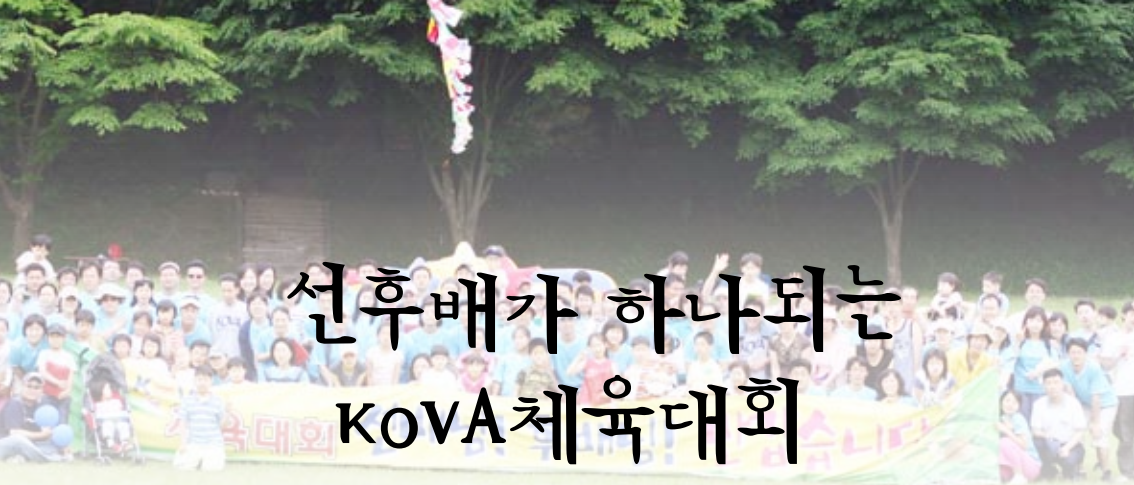
“여러분~... 알다시피 화장실에 문이 없잖아요?. 음... 앞으로 화장실에서 선생님 만나면 인사 안 해도 되요. 괜찮아요. 아니, 안하면 안되겠니?~ 부탁해~ 제발.”

이 5분도 안 되는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여 나는 나의 경험을 나누고자 거기 계신 모든 한국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행동모사까지 더하여 사실적으로 전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웃다가 뒤로 나자빠지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왔다.

“선생님이 잘못했다. 그러게, 나처럼 아무리 급해도 집으로 와야지”

“나는 도서관 건물을 이용하는데..거긴 화장실에 문이 달려 있더라고요.”

나에게 평생 기억될 훌륭한 에피소드를 안겨준 나의 예의바르고 착한 학생들에게 모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학생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2년의 추억들은 회색빛이 아닌 선명하고 밝은 색깔로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그곳에서 또 나와 같은 일을 겪을 한국 선생님들께 화장실 인사법은 따로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조언 아닌 조언으로 이 글을 마친다. KOVA



선후배가 하나되는 KOVA체육대회

- 일 시 : 2008년 6월 6일(금) 11:30-17:00
- 장 소 : 이천 국내훈련소 운동장
- 대 상 : KOVA 회원
- 목 적 : KOVA의 결속을 다지며 선후배가 함께하는 어울림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한다.
- 일 정 : 추후 공고

* 원활한 체육대회 계획과 운영을 위해 KOVA회원들의 사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INTERVIEW

해외봉사 사업의 과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고문
취재:서영철 사무국장

Q: 원희룡 의원님께서서는 청년활동과 청년리더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해외파견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그 중 2만명을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으로 파견하여 우리사회의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외봉사단원 파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해외봉사단원 자질 문제, 재정, 귀국후 진로, 해외현지 행정지원)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A: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세계 이웃을 위해 발이 닳도록 봉사하는 단원들에게 더 이상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후속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파견인원만 늘려서는 단원에 대한 자질 문제 및 행정지원 전반에 대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요.

한국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 산실의 중요한 축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정치권의 공약화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이 여러 반대에 의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같이 여러 법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제고와 합의점 도출에 보다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

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못해서 자원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봉사의 수요조사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요?

A: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거 쓰나미 피해에 의한 반다이체의 봉사단원 수요 등 갑작스런 사건에 의한 필요와 함께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인원을 요구하는 국가가 있을겁니다. 이처럼 정기적 인원을 요구하는 수요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기본적인 인원을 배치하고, 갑작스런 사안에 따라 움직여야 할 인원을 탄력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론과는 달리 예측불가능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해외봉사를 위한 국내 교육 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해외봉사자를 위한 전문 센터가 없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매뉴얼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하는 수준입니다.

원희룡 의원님께서서는 해외청년 봉사단원들을 교육할 센터 설립이나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심분 공감합니다. 200여 개국이 넘는 해외로 파견 될 수 있는 외적인 상황에 비추어봐서도 교육 센터가 전무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많은 인적자원을 통해 쌓인 경험과 지식들을 보다 총합적으로 수렴,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은 꼭 필요한 과제라 봅니다.



Q: 일본의 JICA나 미국의 PEACE CORPS는 귀국한 해외봉사단원을 위해 진로에 대한 상담과 역 문화충격으로 사회 적응이 힘들어하는 귀국단원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님께서서는 KOICA 귀국 봉사단원의 한국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중학교 때 피스코프 영어선생님이 잠깐 와서 가르치고 가셨는데 제 고향 제주에서 돌아가 역 문화충격을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군요. 귀국한 해외봉사단의 원활한 한국 사회적응과 정착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가 해외에 참가하는 열의와 국가적으로 투입하는 자원에 비례하여 신경써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Q: 미국은 귀국단원에 대해 대학원입학 지원 및 학점인정(미국 peace corps),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국단원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력인증제를 법제화 할 생각은 없는지요?

A: 경력인증제가 활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 공감합니다.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인재관리와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성에 있어서도 경력인증제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는 1990년 이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저개발국가에 파견되어 만 2년간 해외봉사활동을 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3,800여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00여명의 이중언어가능 고급 인력이 있지만 활용범위가 작습니다.

원희룡의원님은 4,000여명의 이중언어가능 고급인재가 자신들의 능력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실 생각이 있는지요?

A: 한국은 앞으로 더더욱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세계 곳곳에서 쌓은 경험과 자산들이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쓰일 것인가에 대해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기업이나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서로 잘 연결되어 획기적으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UN에 가입한 나라만도 260여 개국이 되는데, 안보나 경제 이익이 얽혀있는 경우 더 많은 경력과 자격 요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현재 보면 대사가 주재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잖아요. 다양한 외교 인력이 필요하다는 KOVA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 모습이란 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인재활용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계의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홍세나 팀장

어린이재단은 1948년 창설되어 미국 기독교아동복지회(CCF/Christian Children's Fund)의 지원으로 한국 전쟁 이후 발생한 전쟁고아와 이웃들에게 지원을 하다 1986년 국내 순수 민간기관으로 독자적인 국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를 통하여 국내 불우이웃을 비롯하여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해외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이다.

또한 국제어린이재단 연맹(ChildFund Alliance)의 회원기관으로서 전세계 12개국의 해외아동전문기관들과 함께 스리랑카,베트남,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을 비롯한 55개국의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재단의 해외지원사업은 지역개발을 통한 식수 개발, 위생, 보건의료, 영양,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아동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재단 해외사업본부는 해외지원팀과 대부지원팀으로 나누어져 있고, 홍세나 씨는 해외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홍세나 팀장은 프로그램 계획, 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project cycle management, 후원자 서비스 지원, 국제어린이재단 연맹국으로서의 교류 사업 등 해외업무 전반적인 실무 총괄을 맡고 있다. 세계의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홍세나 팀장, 그녀와 함께 세계 속 어린이들을 만나봤다.

Q: 해외사업본부라면, 해외 활동도 많이 하실텐데 홍 팀장이 참여한 해외 활동 사례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것들만 생각해본다면..



A: 스리랑카 누와라 엘리아 지역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리랑카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등 유럽 열강들의 식민시절을 오래 보낸 나라입니다. 특히 영국은 점령기에 중부 고산지대에 tea plantation 을 개발하여 지금까지도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차는 매우 유명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실론티라는 말은 스리랑카의 옛지명 즉 실론 산(産) 차라는 뜻이지요. 문제는 이 tea plantation에서 차를 가꾸고 수확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 아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식민기때 착취당하며 생활하던 방식을 고수하기를 강요당하며 자신의 삶이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인식조차 못한 채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최저빈곤선에 살고 있으며, 일터 (차밭) 옆에 무계획적으로 세워진 임시가옥에서 화장실과 위생시설 없이 '가구'라는 개념도 없이 좁은 공간 (cell)안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물론 없었고, 대안교육시설도 없었으며, 학교로의 접근은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엄두를 낼 수 없었고, 성인들의 우울증과 알콜 중독문제로 아동폭력, 근

친상간동이 발생하는 등 빈곤과 무지의 대물림이 세기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ChildFund Alliance의 스리랑카 지부와 어린이 재단은 tea plantation 소유주 및 지방정부의 협의를하여 아동들을 위한 대안교육과 영양프로그램,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식수·화장실 개발, 보건의료 지원 개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달전에는 전문 교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장기 봉사단(코이카 봉사단)을 파견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추구할 수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과 권리를 찾고싶은 의지,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킨다면 우선 절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욕구에 불씨를 지피고 씨드 자본과 선진적인 개발 모형에대한 수퍼비전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어린이 재단의 몫인것입니다. 그들과 '함께'일하는 것이지요.

Q: 그 속에서 많은 외국아이들을 만났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다면?

A: 올 해부터 저희 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한 우간다에 갔을 때 만난 아이반이라는 소년이 기억에 납니다. 중학교에 다닐 나이이지만 부모님은 에이즈로 사망하고, 학비는커녕 먹을 것을 살 돈도 부족하여 어린 동생과 함께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네 유지의 논에서 새를 쫓는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한 달에 겨우 5달러 정도를 받는 아이였어요. 진흙을 뭉쳐서 막대기 끝에 꽂아 던지면서 하루종일 소리를 질러야하는데, 목은 다 쉬고, 몸이 매우 말라 있었죠.. 다 헤져서 어깨가 흰히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고 하늘의 새들을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이 꼭 자신의 삶에 대한 서러움을 하늘을 보며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견고 말하기 시작 했을때부터,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그 소년은 이 세상에 대해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다가 일행들 모두 숙연해졌더랬습니다. 아이반은다른 아이들 처럼 학교에 가고싶은맘이 너무도 간절해서 크면 선생님이되서 하루종일 학교에 있고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반의 깊은 눈빛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Q: 다문화라고는 하지만, 세계 어디를 가나 어린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항들은?

A: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어린이들을 ‘보호의 대상과 국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사회의 약자, 취약계층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미래, 씨앗입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을때까지는 국가가, 지역사회와 가족이 이들을 지켜주고 가꾸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개도국에서의 어린이는 이러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질 좋은 공교육 시행이 아이들의 미래와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 즉 인적 자원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못하거나, 생각하더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한 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아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도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일만시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생계로 인해 밀리고 아이에게 짐지워지는 것에 대해 문제로 생각하지 않거나, 일단은 그것이 먼저라고 포기해버리면 아이의 삶도 따라서 포기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Q: 코이카의 활동을 아는지?

코이카를 통해 해외 봉사활동을 나가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요즘은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전문직 인력들이 해외 봉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외로 장기간 혹은 단기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부족한 환경에서도 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봉사활동은 참 의미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봉사단원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만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 국민성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낮은 생활에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봉사 분야에 대한 열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으로 남게 됨을 잊지 마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면 ‘홍길동’이라는 봉사단원이 그 지역사람들이 알고있고, 알게 될 유일한 한국사람 일수도 있고, 그들에게 홍길동씨는 대한민국 그 자체로 인식될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이 제일인 것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Q: 코이카에서도 아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 등

혹시 연계 사업을 했거나, 계획하는 게 있는 지?

A: 코이카와는 오랜 기간동안 베트남의 중북부지역의 식수개발 사업과 정형장애, 시각장애수술지원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베트남은 비역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지역, 계층적인 편차가 매우심하고, 고엽제 2,3세대등 전쟁 후유증도 남아있으며, 부패한 사회주의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한 일들이 많았는데, 코이카와의 연계사업이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직



접적인 지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스리랑카 푸탈람지역에서 지역 개발사업과 에티오피아의 625참전용사 지원도 코이카와 연계 진행됐습니다.

Q: 해외에서 만난 코이카 단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

A: 한 개인이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2006년도에 KOICA와 국내 NGO들이 방글라데시를 함께 방문하여 코이카 방글라데시 사무소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의 공여기관, INGO, local NGO 그리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NGO지부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이카 사무소와 코이카 단원들의 관계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이카의 현지 프로젝트에 단원들이 기여하는 바가 컸고, 사무소 역시 전문단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매우 proactive한 관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KOVA



내 기억속에 봉사단 생활

■ 황필규 변호사 / 중국 1기 questun@hotmail.com

취재 : 하재웅 편집위원

Q: 먼저 공감에 대해 KOVA회원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최근 변호사들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면 상당부분 소수자들을 위한 활동이 많은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공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A: 한국은 여러모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도 변화하고 이주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중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변호사 그룹은 많지만 우리처럼 비영리 법인으로까지 해서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은 공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Q: 그렇게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면 현실과 이상에 대한 고민은 안하십니까? 현지에서 활동을 했던 단원들도 귀국해서 대부분 취업을 알아보면서 겪는 문제인데요. 현재 하고 계신 변호사일이 중국에서 단원으로 활동했던 것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나요?

A: 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별로 안하는 것 같다. 봉사단원으로서의 삶과 현재 하고 있는 일과의 연계성이라면 일정부분 연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의 영역 속에서 진행된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물



론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국제인권과 관련된 활동이 많은데, 현재 맡게 되는 업무 가운데 90%는 외국인과 관련된 일인 것을 생각하면 연관이 작지도 않을 것 같다. (웃음)

Q: 황변호사님의 KOICA 단원 시절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A: 보람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으나 역시 아쉬움도 컸다. 당시로는 단원으로서도, 코이카도, 현지 기관도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한번은 점심시간에 쉬고 있는데, 경찰서에 불려간 일이 있었다. 알고 보니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비자와 같은 문제는 사무소측에서 당연히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로 단원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코이카 사무소에 여러가지 제안을 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한 것을 겪을 때마다 아쉬움이 많았다. 당시 처음에는 시골에 3명의 단원이 파견되었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정말 그 지역에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현지 주민들은 비전도 가지고 있

지 않은데, 괜한 환상만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결국 활동 기관을 바꿔서 말하기 대회도 개최하고 청다오(청도) 주변에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인생에서 가질 수 없었던 재충전의 시간도 가졌고, 당시 만났던 학생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이어지는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코이카의 봉사단 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국내와는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들은 활동 기간 중이나 활동 종료 후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에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봉사라는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

A: 현지 사무소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기관배치도 적절성 여부 그리고 협의의 과정 등을 거쳐서 처리되길 바란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가 제기한 쪽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좀 더 단원의 입장에서 고려를 하면서 문제 해결 방식이 보다 객관적 소통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단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KOVA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직접적 동기도 단원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깊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지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활동 전과 그 후의 시기에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배려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주어진 단원 활동은 충실히 감당해야겠지만, 다른 공부나 기술 및 언어 훈련 등은 시스템적으로 적극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의무만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제도적 보안을 통해서 실제로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기 바란다.



Q: 현재 이주민 혹은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A: 다문화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지 외국인

들 간의 결혼은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안에도 들어가 있다. 재외동포도 재력에 따라 평가되고 있으며 이들 중 동화되어야 하는 부류와 제외되어야 할 부류를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Q: 후배 단원들에게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별히 활동 단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귀국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이 있다면?

A: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단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길게 봐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봉사단으로 귀국한 후 5년 동안은 월급 받는 일을 해본 일이 없다. (웃음) 귀국한 단원이라면 좀 더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 단원으로서의 활동도 그러한 시야를 넓히는 것에 중요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KOVA

아름다운재단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3층

TEL 02-3675 FAX 02-3675-7742

www.kpil.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162-910001-07637(예금주-아름다운재단)



다문화인권정책포럼

■ 하재웅 편집위원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보인 18대 총선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흐름은 역시 한국의 보수화 바람이다. 그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일까? 3월 7일에 일어난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의 범행으로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우리 사회가 외국인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시민단체를 비롯해 언론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2007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총 106만 6291명이나 된다. 그 중 약 20만 명(2009년에서 2006년까지 국제결혼 총건수 18만 7382명)은 결혼이민자들이다. 최근 급증하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80개 지역에 83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인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논의가 절실히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가 주도적으로 '다문화정책포럼'을 만든 것은 시대적 필요라 할 수 있다.

지난 2월 12일 개최된 제 1회 포럼에서는 「다문화 담론, 왜 인권이 이슈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사)이주노동자복지회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병국 의원의 격려사와 고기복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이사장의 주제발제로 이루어졌다. 발제문에서 고기복 이사장은 다문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인권’이 주요 이슈가 되지 않고서는, 다문화라는 용어는 ‘문화’를 빙자한 또 다른 폭력으로 이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포럼의 토론자로는 관련 교수와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나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외국인 인력정책을 운영하면서 술한 정책적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는 주체는 별로 변화되지 않았으며, 미등록자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3월 19일에 진행된 제 2회 포럼은 「새 정부의 다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은 전반부에서 ‘한국다문화정책의 기초와 내용’에 대해서 후반부는 ‘유럽과 일본의 다문화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발표는 맑은 평택대학교의 윤영미 교수는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인식과 외국인의 현황 파악, 그리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와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는 ‘이민청’ 등의 신설을 통해서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무적인 것은 포럼이 회를 거듭할수록 운영의 방법과 내용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 회에는 일부 교수진이 참여하기는 했으나 지나치게 시민단체들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 2회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 및 실제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까지 토론에 참여해서 논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문화에 대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사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 자신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처음부터 강하게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럼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약했다고 생각된다.

진행 예산과 전문가 층의 부족 등 여러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포럼의 활동은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적 논의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KOVA



문화동반자들과 함께한 청계천나들이

■ 최진희 편집위원

올해는 봄이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추위에 힘겨워하는 동남아 신부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계절도 서서히 그들을 포용하려는 듯 했다. 문화동반자 프로그램 1탄으로 한국 거주 캄보디아인들과의 이른봄나들이를 계획했다. 종로에 위치한 관광진흥공사에 가서 한류를 만끽하고,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한국의 봄을 재촉하고 한국음식 매콤한 낚지볶음과 감자탕을 먹는게 하루일과였다.

캄보디아 신부 3명과 한국인 신랑 1명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온 유학생 2명 캄보디아어 통역자원봉사자 1명... 우리는 모두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더불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나라를 동시에 품고 사는 사람



들이기에 그만큼 사고의 폭도 넓으리라 본다.

캄보디아 신부들이 너무도 좋아했던 관광공사 지하에 있는 실물 크기의 한류스타들 브로마이드. 그들은 열심히 옆에 서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은근슬쩍 비의 팔짱도 끼어보고, 장동건의 어깨도 만져보지만 혹시 남편이 볼까 조심하는 모습이 너무도 귀여운 20대 초반의 캄보디아 신부들이었다. 캄보디아 유학생들은 최지우의 사진을 찍어서 효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자랑했다.



최지우와 효리를 구분하지 못할만큼 아직 캄보디아에서의 한류는 미비하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는 것은 확실했다. 캄보디아 유학생들은 특히 청계천의 발달사에 관심이 많았다. 캄보디아는 언제쯤 한국과 비슷해질까? 연이어 질문을 하기도 했다. 10년 후에는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씨엠립강도 청계천처럼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했더니, 10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그 기간 속에 캄보디아가 이처럼 발전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스런 일일거라 말했다.

그렇다. 물론 10년 안에 캄보디아가 이처럼 변화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 젊은이들이 있는 한 분명 변화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과 함께할 때면, 매일 거닐던 곳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낯선 한국땅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기만하고, 이제 이 땅을 내 땅으로 받아들이고자하는 이들의 가슴에 봄날처럼 따스한 일들만 일어나길 빌어본다. KOVA



다문화 사진 공모전

WHAT WE WORK



[은상] 베트남-이원규
 <인디언들이 시간...>
 서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보여주고
 행복함이 깃드는 시간이였다.



[은상]세네갈-최영주
 <세네갈 서당>
 동네 구석에 학교가 있다.
 이들은 여기서 코란을 배우다,
 목판공책으로...

[금상] 스리랑카-오미혜
 <기차라고 여행가요!>

나누오야(Nanuoya)로 가는 2등석기차 안의 풍경.
 스리랑카에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나 이런기차안과 같은 특정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버지와 두 딸의 행복한 여행길.



[동상]스리랑카-곽진순
 <Haputale. Lipton's Seat>



[동상] 네팔-김종동
 <네와라키 결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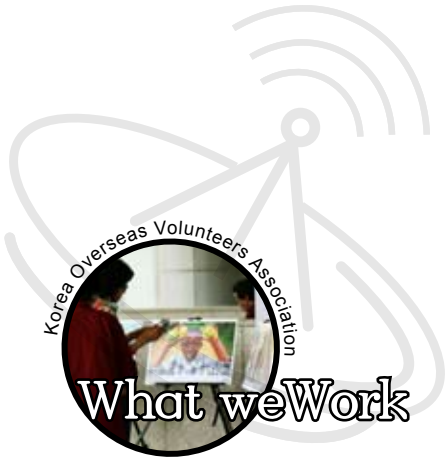
[동상]세네갈-송진희
 <레귤러 소녀!>



[동상]요르단-김민준
 <과야와당나귀>



[동상]베트남-류수형
 <울소를 타고 가는 우뭉 아이들>



자원봉사 대축제 다문화 이웃과소통을 ...

자원봉사대축제 스타트 9일간 100만 명 동창

자원봉사자 100만 명이 참가하는 제15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출범식이 21일 서울 역 광장에서 열렸다. 19일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중앙일보·한국자원봉사협의회·SBS가공동 주최한다.

이날 출범식은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사)한국자유총연맹, 복지TV, (사)한국다문화사랑공동체,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한국BBB운동이 공동 주관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일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김준목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이제훈 한국BBB운동 회장,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최규옥 복지TV 사장,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주안 다이안 주한 필리핀 외교관 등이 내빈으로 초청됐다.

올해 대축제 주제는 '새로운 이웃과의 소통 - 다문화 자원봉사다. 소외받는 탈북민이나 외국 이주 여성 및 근로자에 대한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이일하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외국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었고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며 "올해 축제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세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을 국정 파트너로 삼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 선서에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 실라 슴(34)과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이시숙(41·여)씨가 대표로 나섰다. 실라 슴은 "2005년 내전 중인 조국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 감사한다"고 말했다. 실라 슴은 현재 어린이집 등을 돌아다니며 영어와 아프리카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3년째 외국인 이주 여성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는 이씨는 "외국인과 선서를 함께한 것이 올해 주제와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KOVA

■ 참고 : 인터넷 중앙일보 / 2008년 4월 22일



KOVA 다문화이해를 위한 국제협력특강

■ KOVA사무국

세계화 정보화 과정에서 급속한 정보통신 및 교통기술의 발달, 자본주의의 새로운 활로 모색에 따른 시장경제주의의 전 지구적인 확장으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국가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 질병, 빈곤, 핵무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적 문제의 공통적인 관심이 증대하면서 국가간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이제는 공존공영을 목표로 한 국가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시민운동지역 등 모든 영역에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기적 관계 구축(국제협력)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빈번한 국제교류와 이주민 1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세계를 비롯한 타문화에 대해 여전히 배타적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 등 사회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른 타문화이해교육(Cross Cultural Communication Education)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학교에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성품을 요구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평화 정신을 내면화 하고, 인류가 형성한 다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고,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에 2008년 KOVA특강은 1회성 특강이 아닌 2~3회차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하여 좀 더 폭넓은 국제사회이해와 국제협력,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문화경험, 우리속에 들어와 생활하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등 타문화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1990년부터 파견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외봉사단원들은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최소 2년간의 봉사활동을 통한 국제협력과 현지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지역전문가(회원 3,926명 '07.3월 기준)로서 인류공영의 번영과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며, 더불어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KOVA회원들은 현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270여개 학교에서 국제협력특강('07년 41개교 4,813명)을 진행해왔으며, 3~4년간의 특강경험을 가진 강사풀이 구성되어 이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다. **KOVA**



HOPE SEED 장학금, 희망과 미래의 꿈이 됩니다.

1. 목적

- 가. 개발도상국 차세대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꿈을 만들어주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만들어 준다.
- 나. 빈곤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의 길로 인도 한다.
- 다. 재능과 소질은 있으나 여러 여건상 자신의 뜻을 키울 수 없었던 많은 개발도상국의 차세대 인재들에게 자신의 멋진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2. 주요대상

KOVA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31개국의 초·중·고·대학생.

3. 필요성

- 빈곤은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20%, 12억 명 인구가 하루의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고 있다. 학교로 향해야 하는 발길이 일터로 향하고 있다. 평범한 아이들이 누릴 만한 꿈과 희망이 작업장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 하루 1달러의 삶조차도 버거운 개발도상국 차세대에게 배움을 통해 그 나라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이 절대 빈곤 및 기아와 싸우고 있다. 현실적으로 빵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4. 수혜자 : 13개국 27명



안녕하세요^^

라오스 김지훈 단원입니다.

제가 추천한 학생이 선발되었다니 기쁩니다.

선발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꾸벅^^

아울러,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올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32기 이영란입니다.

우선 분나리 학생을 선발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장학증서까지 보내주신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고민했거든요. ^^;

저는 장학금 수령을 국내계좌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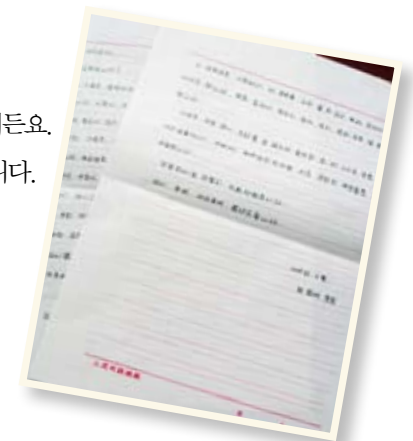
5월에 파견되어 올 후배단원이 확실하지 않거든요.

계좌번호는 다음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점차 더워지겠군요.

여기는 이미 한 여름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KOVA



#1 개선문을 당다 |

라오스의 개선문은 빠뚜싸이라고 불리운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어딘가 부족하듯, 반듯하고 딱찬. 이러한 빠뚜싸이는, 라오스의 대표적 건물이며 관광지임이 분명하다.

#2 사바나켓은 |

예전 도시중심이었던 광장. 지금은 건물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멋졌던 모습을 알려주기라도 할 듯이 오래된 건물과 하늘, 조명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서있다.

#3 라오스의 얼굴들 |

불상들의 표정과 느낌. 그리고 라오스의 얼굴들. 길거리 어디서나 볼수 있다.

#4 아띠, 아띠, 농녕.. 우리집 |

5월이면 라오스에는 장마가 시작된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주인집의 천사들이 나를 환하게 반겨준다. 그러나 곧 무섭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처마 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옷을 벗긴다. 그리고 이들은 목욕이자 물놀이를 시작한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는 아띠와, 농녕.. 이들이 있어서 나의 라오.

#5 우리는 공부중 |

낮선 외국인이 수업 중에 학교방문을 핑계로 수업방해를 했다. 곧 무너질 것 같고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고, 좁고 불편한 책상에 꼭 끼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책도 없어서 노트 하나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라오스의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아이는 커녕, 또 환하게 반겨주는 멋진 녀석들이다.



#1



#2



#3



#4



#5



#6 라오스의 전통춤 |

주말마다 모여서 열심히 연습한 친구들이 숨쉴 틈을 보여주었다. 문화행사 중간 중간 그동안 라오 전통춤. 무지하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는 당당함으로 우아한 라오스 춤을 추는 청소년들. 저희들 예쁘죠?

#7 라오스의 어린이 대표 |

라오스의 어린이날은 6월 1일. 그날은 지역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유치원에서는 조금 앞당겨서 행사를 했다. 우리나라의 학예회같은. 이날 한 아이는 라오스 전통복장을 제대로 갖추고는 누구보다 당당한 자세로 포즈를 취한다. 그 뒤에 흐뭇하게 바라보는 선생님들마저 나를 미소짓게.

#8 떠저라~!! 풍선아~!!

이 학교에서는 어떤 게임을 해도 아이들은 모두 즐거워한다.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이러한 활동이 마냥 신기하고 즐겁기만 한듯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하거나 소수에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은 이미 지나갔고 보다 즐겁게 많은 아이들이 많은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풍선 하나로 행복해 하는 이들에게 내가 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더 생각하게 한다.

#9 콧짜이~!! 감사합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콧짜이-> 감사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학교는 개교이래에 이러한 행사가 처음이었다. 단 한번도 어떻게, 또 그 선생님들에게 하루종일. 라는 인사를 들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청소년활동은 커녕. 태어나서 마술풍선으로 만들어진 선물을 처음 받아보고, 그룹게임을 처음으로 해보고.. 언니오빠들과 무엇인가를 처음해보는. 행사가 끝나고서도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이들에게 카메라를 꺼내자, 이들은 모두 달려들었다. 너무도 행복한 얼굴로...

#10 함께여서 즐겁다~!!

이들이 즐거운 것은 함께여서가 아닐까. 이렇게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라오스에 있는 동안 더 바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녀석들. 넘어지고 까치고 다쳐도 함께여서 즐거운 이들. 제대로 된 수돗가는 50명분의 설거지를 해도 즐거운 이들.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 꼬마들에게 에어로빅을 준비해가고 그룹게임을 연습하고, 전통춤을 황금같은 우리를 도와 행사를 멋지게 만들어준 고마운 녀석들. 내가 이 먼 라오스까지 온 이유는 이 녀석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닐까. KOVA



사이공, 뚜이화, 벤째 그리고 다시 서울로

■ 이광렬 / 베트남 21기 jesusfirst@hitel.net

초등학교 5학년 을 마치며 정든 해남 땅을 떠나 가야호에 몸을 싣고 어둠에 묻힌 제주 땅에 발을 디뎠다. 70년대 초반 그것도 한라산 자락 깊고 깊은 중산간 마을은 얼마나 낯설던지. 말도, 음식도 아니 바람과 돌마저도 달랐었다.

지천명을 바라보며 다시금 불어온 방랑벽일까? 하지만 미국, 필리핀, 태국 등의 유학이나 선교활동을 통해 쌓인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귀에 익은 땅 베트남을 향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숙명적 삶의 길을 걷는 것이리라. 크리스천인 나에게는 분명 그러하다고 믿는 믿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큰 과오까지도 그분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베트남 땅에서의 2년은 어찌 보면 도끼 하나 들고 집 한 채 지어낸 기분이었다. 베트남 노동부 산하 국제인력학교는 호치민시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 베트남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이주 노동자로 내보내는 학교이다. 말이 학교 이지 대부분 두 달 정도(240시간 여)의 교육으로 한국에 보내진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다행인 것은 하노이에서의 10주간의 현지 적응 훈련 중 처음 실무 실습(OJT)을 가보니 내가 왜 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 목표가 주어졌기에 해결해가는 방법은 몸으로, 능력이 없으면 시간

으로 채울 수밖에 없지 않는가? 주당 30시간 정도의 강의와 30여종의 문제 은행을 만들어 평가하는 일을 하면서, 한국어교육과정을 만들고, 6개월 만에 완성한 교과서 '취업한국어'는 공산당의 출판을 받는 데에 또 6개월이 걸렸으니 출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4,000달러 정도가 투입된 단원 프로젝트를 통해 3개 교실에 교단선진화 사업을 완성하고, '취업한국어'에 대한 단원별 PPT 교수-학습 자료 및 녹음 자료를 만들고, 양도식을 마치고 나니 귀국 하루 전이었다.

제주도로의 이주에서 비롯된 삶의 경험 즉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개척하며 살아간다는 것. 과수원을 하던 아버지께서 밭에 돌이 많다고 몇 달에 걸쳐 돌을 긁어모아 다 치웠더니 결국 땅은 마르고 잡초는 우거졌었다. 이를 생각하며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몇 천 년을 살아오며 왜 화장실은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는지, 왜 그토록 냄새나는 풀을 먹어야만 하는지를 그들의 생각과 환경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며 나 또한 그 속에 함께 뒹굴었던 시간이었다면 과장된 말일까? 봉시는 같이 놀아주는 것,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비약일까?

2년간의 국제봉사활동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라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처녀와의 국제결혼'이라는 현수막이 코이카훈련소 곁에도 펄럭이던 그 때에 베트남 땅으로 가는 것에 동의해준 내 아내에 대한 절대적 고마움. 2,500여명의 제자들을 가르쳐 대부분 한국으로 진출시켜 어려움 속에서



도 자신들의, 가족들의 꿈을 키워가는 대견스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 뿌듯하다. 그러나 그보다도 아침마다 학교까지 오토바이(썰음)을 태워다주던 쫓아져서, 600원짜리 쌀국수집 부부, 어렵게 자랐지만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섯 명의 베트남 양아들 딸과 맺은 귀한 인연. 그리고 매사에 칩사대접을 해주던 Thuy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백여 명

의 선생님들과 나의 동역자 Duy. 사이공한인연합교회의 성도님들과 현지 형제들. 무엇보다도 베트남사무소의 옥이호소장님과 이회경선생님 등의 전폭적 지원. 모두가 고맙고 그리운 얼굴들이다.

호치민시(옛이름 사이공)는 작은 과리라는 별명이 있듯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활기가 넘치는 도시이다. 사철 따뜻한 기후이면서도 하루에 한번쯤은 소낙비도 내려 주고, 동서남북 200킬로 안에 산 하나 없는 해발 4미터라니. 가도가도 끝없는 푸르고 푸른 땅. 하지만 그 도심에만 머무르기에는 욕심이 많았음인가? 시골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두가 사이공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대학에서 수강하고 기숙한다면 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뚜이화(Tuy Hoa)에서의 '지방 이동식 수업'은 결국 경제적, 시간적, 교육적 효과에서 대성공을 거두어 베트남 국영 TV에서도 뉴스로 취급하였다. 이후 풍요로운 메콩강 유역의 벤째성, 미토, 동탑 그리고 중남부 산악 끈뚱까지의 수업으로 이어졌으니.

그렇게 가르친 학생들을, 귀국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여기저기서 만나고 있다. 주말이면 아내와 같이 현 잠바라도 수집하여 찾아가 입혀주고, 삼겹살로 배라도 같이 채우는 일은 소주값으로 허비하던 시절보다 훨씬 행복하다. 실낱에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파주, 인천으로 가 젊은이들을 집(의정부)으로 태우고 와서 같이 먹은 떡국 그리고 세배는 얼마나 가슴 찡하던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들과 만남을 뜬하게 하고 있다. 때론 저들이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들 스스로 더 굳건히 헤쳐 나가라고. 그 여력이 남아서인지 또 다른 할 일이 생긴다.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일. 아직 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포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국제학교를 개교하고, 직간접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음은 또다른 비전이고 즐거움이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손을 펴 내밀면 넘쳐나는 것이 행복임에 분명하다. 사실 나 눈다고 하지만 시간이, 물질이 내 것인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섬김뿐인데. 카페 (<http://cafe.naver.com/koicakov>)를 열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들으며 나의 모습을 추슬러보는 일도 계속되어야 할 나의 일인가 보다.

코이카 단원 활동 이전의 나의 초등학교 교직 생활은 때론 아이들의 소리가 소음으로 들렸으나 이제는 저들의 재잘거림이 노래 소리,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 하늘의 행복 함창으로 들리고 있다. 결국 2년간 1억 원 정도의 월급을 손해 본듯한 나에게, 남은 삶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신 축복임에 분명하다. 지구촌 구석구석 모두가 행복한 그 날까지! 사랑의 통로,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KOVA



오래살고 싶으세요? 빌카밤바에 오세요~

■ 한 신 / 에콰도르 36기 2kblove2@hanmail.net

Vilcabamba 는 장수촌으로 유명하다. Vilcabamba 물(생수) 상표가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좋아, 피부에도 좋고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피부병에 걸렸을 때 Loja 사람들이 Vilcabamba를 찾는다고 한다.) 또한 온도가 우리나라 봄 날씨로, 따뜻하고 큰 변화가 없어 감기 등의 작은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에콰도르의 동쪽 아마존의 바람이 서쪽의 태평양까지 불어오면서 Vilcabamba에 좋은 날씨를 만든다고 한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날씨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은 사람들에게 운동효과를 주어 오래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Vilcabamba는 Loja에서 차로 45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이다. 명성에 걸맞는 시골답게 Loja에서 아주 좋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위험하지도 않고, 접근하기도 쉽다. 그리고 버스비도 \$1 뿐인데다가, 15분에 한번 씩 있을 정도여서, 실제 Vilcabamba에 사는 주민들은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 중에서는 학교와 학원을 Loja로 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Vilcabamba는 큰 고속버스가 아닌, 봉고차를 타고 가기도 한다. Vilcabamba 터미널로 가는 길에 보면, Vilcabamba 문이 있는데, 여행책자에는 외국인들이 말을 타고 이 문을 통과하는 사진들로 홍보를 하고 있다.(문 사진)

실제 '장수촌'으로 유명한 Vilcabamba 이지만, 막상 가보면 할 일이 '말 타는 일'이 가



문사진



전망사진



앨범사진

장 눈에 띄는 일이다.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분지 형태인 곳이 많은데다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까지. 말을 타고 언덕을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Vilcabamba의 자연을 구경하는 일. 그것이 장수촌을 느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다. (전망사진)

물론 spa 와 수영장 등을 찾아 좋은 물로 몸을 씻고 마사지를 받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그밖에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Vilcabamba를 구경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걸어서 직접 자연을 느끼며 등산할 수 있는 코스, 산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며칠 동안 생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

말을 타는 경험은 어디에서든 할 수 있지만, Vilcabamba의 자연을 구경하면서 말을 타는 것은 다른 곳에서 말을 타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Vilcabamba의 자연을 제대로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산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타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서는 여유가 있는 외국 관광객들은 자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몸소 체험하기 위해 산장에서 자는 코스를 선택하기도 한다. (2박3일 산장코스 100달러)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 빌카밤바에서 에콰도르를 여행하면서 쌓았던 많은 피로를 풀기위해 찾는 것 같다.

빌카밤바에서는 이런 코스들을 경험한 팀들을 사진으로 찍어 앨범에 담아 다음 관광객들을 위해 전시 중이었으며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미리 사진으로 보면서 선택하기 쉽게 해놓았다.(앨범사진) 나도 여기에서 앨범을 보면서 경험해 보고 싶었지만 무박의 여행으로 와서 경험하지 못했다... 정말 굉장히 아쉬웠다. 다음에는 꼭 경험해봐야겠다~

실제, Vilcabamba는 Loja와 Zamora의 경계에 있는 Podocarpus라는 국립공원도 접하고 있다. 그래서 Vilcabamba에서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을 정도로 큰 자연공원이다. 그 영향으로 빌카밤바도 산이 높고, 강줄기도 긴 멋진 자연경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누구나 다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던 장수하는 비결 장수하는 법... 여기 Vilcabamba를 여행하면서 얻어낸 그 답은 자연과 함께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게 답이 아닌가 싶다. KOVA



제20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에 다녀와서...

■ 서영철 사무국장

제20차 세계자원봉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4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파나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계대회 주제는 인간발전을 위한 자원봉사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연대형성이었다. 세계자원봉사대회 보고에 앞서 IAVE에 대해 잠시나마 설명을 하겠다.

IAVE는 전세계에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함께 나누며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직된 국제 NGO이다. IAVE는 현재 100여 개국 약 800여명의 개인 및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IAVE 신임회장 이강현

IAVE 주요활동 회원들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및 각종 간행물, 경험의 교류, 격년의 세계 대회 개최, 지역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과 이익을 제공한다.

IAVE는 각 지역의 회원들의 투표로 이사를 선정하고, 전 세계 약 60개국의 국가대표를 선정하며, 참여 국가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IAVE는 1970년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종, 국가, 계층간의 교량으로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에 공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소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보와 성공사례 및 상호 지원을 통한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전세계에 자원봉사 참여를 강화하고 장려할 것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UN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01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총회 선언 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제정된 GA RES/52/17을 위해 회원 및 회원국 정부간의 지원을 구축했다. 또한 IAVE의 전세계 회원 및 회원국은 2001년을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로 선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것을 IAVE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20차 세계자원봉사 대회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대륙으로 꼽히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는 빈부격차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제20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이 처한 이러한 상황은 "빈곤퇴치를 위한 연대"라는 본 대회 주제에 잘 들어맞는 적절한 이슈였다.

새천년개발목표 8개 중 첫 번째 목표인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필수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는 정부나 기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의 주도 하에 사회의 모든 행위자가 협동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 건설이 가능해진다.

2008 세계자원봉사대회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과연 나의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다른 나라의 나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자원봉사 단체간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다질 수 있었다. 즉, 협동의 의미를 더하고 확장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포럼은 빈곤퇴치를 위한 자원봉사, 연대와 평등을 위한 자원봉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2008 세계자원봉사대회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서로 보고 배우면서 국제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다지게 되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갈 수있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번 세계자원봉사대회 기간에 로스앤젤레스에 재미한인자원봉사자회 (PAVA: Pacific American Volunteer Association)와 LA 자원봉사센터 (Volunteer Center of Los Angeles)를 방문하였다. 로스앤젤레스에 재미한인자원봉사자회 (PAVA: Pacific American Volunteer Association)은 로스앤젤레스의 자원봉사센터와 한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재미한인자원봉사자회이다. LA지역의 새롭고 혁신적인 자원봉사활동들을 둘러봄으로써 자원



봉사 선진국인 미국의 자원봉사 진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식견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미한인자원봉사자회는 환경보호운동이라는 지구촌 공동과제를 지역사회가 앞장 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한



인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봉사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은 지구촌 건설을 위해 각 지역사회가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어 긴밀하게 협조하고, 미래를 위한 대비책으로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것을 사명

으로 여기는 이 단체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보다 밀착된 자원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LA 자원봉사센터 (Volunteer Center of Los Angeles)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조력 연맹에 속한 8개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 중 하나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이다. 광활한 크기의 주 지역 내에서 유타 주의 4배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LA 자원봉사센터는 자원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2,500여 개의 기관에서 해마다 6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 형태는 은퇴자/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센터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각 계층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를 들여다보고, 지역 내 학교 커리큘럼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함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 대형 자원봉사센터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토론회가 되었다.

이번 제20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석으로 국제적인 자원봉사의 동향과 자원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자원봉사의 윤리에서 가장 내 머리 속에 각인 된 말은 Respect였다. 자원봉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결국 자원봉사의 시작일하는 것을 말이다. **KOVA**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가정 아버지 학교

1. 사업개요

- 사업명 :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아버지(남편)대상 인권교육'
-다문화가정 여성인권 침해 방지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08년 3월 1일~2008년 11월 30일

2. 사업목적

- 다문화가정 여성인권을 존중하도록 남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다문화가정의 상호 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문화적 갈등 해소를 돕는다.
- 다문화가정의 문화 소통과 언어소통을 지원한다.

3. 주요사업내용

교육대상	▪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남편 대상
교육장소	▪ 서울, 경기지역
교육내용	▪ 다문화가정 여성인권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교육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배우자 문화 이해 및 문화 충돌 시 해결법 (국가별)
교육방법	▪ 다문화가정을 방문한다.
기대효과	▪ 아버지(남편)가 변하면 다문화가정의 여성인권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에게 한국 내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소외를 막는다.

KOVA PROJECT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학생해외봉사단파견



4.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 시기	주요 내용	세부 사업 내용
3월~4월	(기획) 기획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조사 교재제작
5월	다문화가정 인권 지킴이 교육 -교육대상: KOVA 회원 및 비회원 -교육비: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교육: 문화교육: 상담교육:
6월	다문화가정 아버지(남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아버지(남편)대상 아내 나라 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정 아버지(남편)대상 아내 나라 언어교육 인권교육
7월	중간평가 및 후속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아버지(남편) 학교의 중간평가 및 설문
8월~10월	다문화가정 아버지(남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아버지(남편)대상 아내 나라 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정 아버지(남편)대상 아내 나라 언어교육 인권교육
11월(평가)	사업평가 및 후속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결산 및 평가자료 정리 및 보고

1. 인도네시아팀



- 가. 활동국가: 인도네시아
- 나. 활동지역: 수방군 (수방군청 지역개발국)
- 다. 활동기간: 2008.07.03~07.18(16일간)
- 라. 참여인원: 29명(대학생 25, 단장 1인, 부단장 1인, 통역 1인, 코디네이터 간사 1인)
- 마. 주요활동:
 - 문화소통: 한국영화 페스티벌, 한국 전통문화
 - 언어소통: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의 만남(서로의 언어배우기)
 - 문명소통: 세계문화 유산방문-역사 유적지 방문, 화산(휴화산, 안전함)
 - 참여활동: 인도네시아 현지 초·중·고·대학교에서 일일 선생님
 - 교육활동: 초·중·고·대학교에서 IT 교육, 한국어 교육
 - 한국기업탐방: 수방 지역에 있는 한국기업 방문(견학)
 - 현지 가정생활 엿보기: 홈스테이

- 긴급재해복구지역 방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진 피해 지역 방문
- 체험 삶의 현장: 희망도서관 만들어주기, 파인애플 밭에서 파인애플 수확
- 위생교육: 위생교육 '손씻기', '양치질', '구충제'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백신예방: UN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백신 홍보

KOVA PROJECT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2. 캄보디아 팀



가. 활동국가: 캄보디아

나. 활동지역: 캄땡사움 마을과 캄땡사움 초등학교

다. 활동기간: 2008.07.03~07.18(16일간)

라. 참여인원: 30명(대학생 26, 단장 1인, 부단장 1인, 통역 1인, 코디네이터 1인)

마. 주요활동:

- 문화소통: 한국영화 페스티벌, 한국어 축제 및 캠프, 한국 전통예술 공연
- 언어소통: 한국어와 캄보디아의 만남(서로의 언어배우기)
- 문명소통: 세계문화 유산방문-앙코르와트 역사 유적지 방문
- 참여활동: 캄보디아 현지 초·중·고·대학교에서 일일 선생님
- 교육활동: 초·중·고·대학교에서 IT 교육, 한국어 교육
- 현지 가정생활 엿보기: 홈스테이
- 질병예방: 위생교육 '손씻기', '양치질', '구충제'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위생교육: 초등학교 담장 쌓기, 돼지우리 만들기, School Upgrade
- 백신예방: UN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백신 홍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Global Youth Leadership GYL

찾아 떠납니다.

1. 사업명: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한국해외봉사자(KOV) 활동 탐방"
2. 세부목표: KOICA 해외봉사 활동 현장에서 글로벌 리더의 마음을 배운다.
 - KOICA단원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미래의 글로벌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준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기본자세인 나눔과 존중의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KOICA단원을 활동 현장을 방문하여 해외봉사의 모습을 살펴보고 봉사자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 일일 해외봉사자가 되어 현지인과 함께하는 봉사자의 보람을 체험하게 한다.
3. 인원: 서울시 거주 중학생 7명
4. 방문기간: 2008년 8월 5일(화) ~ 2007년 8월 13일(수) 9박10일
5. 방문지역: 스리랑카 (콜롬보, 캔디),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수방, 반둥, 대륙)
6. 방문내용
 - 1) 개발도상국 32개국에서 해외봉사를 하고 있는 KOICA단원의 활동기관을 견학하고 이들의 활동내용과 경험담을 듣는다. 일일 해외봉사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2) KOICA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소장님의 해외봉사에 대한 강의 및 각국 상황을 듣는다.
 - 3)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적 탐방한다.



■ KOVA 사무국 이전

KOVA 사무국은 5월22일에 성남 KOICA 신청사로 이전한다.
 KOVA사무국은 신청사 연수동에 4층에 위치 할 예정이다.



| 전화 : 031-777-2690
 | FAX : 031-759-5604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사릉동298) 제1연수센터 4층 A406

■ 한국해외봉사단원들의 생활 및 제반 사항의 실태파악 설문조사 실시

설문기간: 5월6일~5월16일까지(2주간)

본 설문지는 한국해외봉사단원들의 생활 및 제반 사항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활동단원들의 고충거리를 조사하고, 사단법인 한국해외봉사단원 연합회(KOVA)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원의 권익보호와 고충 개선사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와 MOU체결

KOVA는 지난 4월10000에 mizy센터와 MOU를 체결하였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문화교류 특화시설인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는 국내의 청소년들의 문화간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0년 5월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개관 이래 현재까지 서울시의 위



탁을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지센터는 다문화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이해 프로그램과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KOVA에서는 2008년 캄보디아에서 봉사할 대학생 해외봉사팀을 인솔해 줄 자원봉사자를 선발합니다.

- * 선발대상 : 1. 캄보디아 파견 KOVA 정회원
 2. 캄보디아어 일상통역가능 3. 귀국 단원
- * 서류제출: 2008년 5월6일 - 2008년 5월13일까지
- * 면접: 2008년 5월 21일 (서류에 합격한 회원만 면접, 개별통보)
-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봉사활동 내용 포함)
- * 지원: 왕복 비행기표, VISA 비 포함

■ 다문화 인권 강사 모집(국가인권위 프로젝트)

1. 사업개요

- 사업명 :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아버지(남편)대상 인권교육-다문화가정 여성인권 침해 방지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08. 3. 1. ~ 2008. 11. 30.

2. 사업목적

- 다문화가정 여성인권을 존중하도록 남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다문화가정의 상호 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문화적 갈등 해소를 돕는다.
- 다문화가정의 문화 소통과 언어소통을 지원한다.

3. 모집국가

- 베트남 5명, 캄보디아 5명
- 기타국가 0명
- ★그 외 관심있는 타국가 파견 회원도 청강이 가능합니다.

4. 모집기간

- 모집기간 : 5월 7일 ~5월 20일 (오후 18시까지)
- 제출서류 : 첨부서류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연락)

- 문의사항: 강순팀장(02-740-5604)
- 기타: 선발된 강사는 주말을 이용한 활동 가능

5. 강사 기초교육

- 1주차 5/31(토) 13:30-14:30 프로그램개요소개
5/31(토) 14:30-17:30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민자 실제
- 2주차 6/14(토) 13:30-15:30 인권에 대한 이론과 실제
6/14(토) 15:30-17:30 이주여성 현황과 실태
- 3주차 6/21(토) 13:30-15:30 사례소개(캄보디아인 아내를 둔 가정)
6/21(토) 15:30-17:30 사례소개(베트남인 아내를 둔 가정)
- 4주차 6/28(토) 13:30-15:30 타문화 이해와 실제
6/28(토) 15:30-17:30 다문화정책과 법

♥ 우리 결혼했어요 ♥

네팔 22기 장석태 회원 결혼합니다.

- ♥ 2008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 ♥ 경기도 오산시 신희웨딩홀 3층 크리스탈 홀(원동 811-6)

파라과이 21기 조대성 회원 결혼합니다.

- ♥ 2008년 5월 10일 오후 2시30분
- ♥ 홍대 청기와 예식장

네팔 18기 네팔 백창운 군과 네팔 22기 임윤정 양이 결혼예배를 드립니다.

- ♥ 2008년 4월 18일 (금) 오후 7시
- ♥ 서울 합정동 양화진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선교기념관



■ KOVA 사무국에서는 여러분의 정회원 가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에 있는 “정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시흥동298) 제1연수센터 4층 A406
- 전 화 : 031-777-2690
- 팩 스 : 031-759-5604
- 메 일 : office@kova.org
- 홈페이지 : www.kova.org→정회원가입신청서(첫화면)
- 싸이월드 주소 : town.cyworld.com/kova (KOVA와 일촌이 되어주세요)

■ KOVA 평생회원과 정회원이 되면?

- KOVA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시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 KOVA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인 우수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진전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귀국 후, 다문화이해 강사 자격 부여 및 활동 기회제공 됩니다.
- 귀국 후, 통.번역 인력pool 자동 가입 및 특수언어 통역활동 기회가 제공됩니다.
- 귀국 후, 경력 인정 관련 협조 공문 및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회비를 납부해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명단을 보시고 누락되신 분은 KOVA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지에 나오는 명단이 KOVA에 속한 정회원들의 명단입니다.

활동단원이었을 때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단원들은 귀국 후에도

정회원 자격이 유지되지만, 월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귀국 후 필히 재가입 하셔야 정회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활동단원) 평생회원 가입자-귀국 후→별도의 재가입 절차 필요 없음
- ▶(활동단원) 월 회원 가입자-귀국후→재가입 요망(월/년/평생)

KOVA 사무국에서는 매월 회원들에게 e-mail을 통해서 KOVA소식과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KOVA 사무국으로부터 발송되는 공지메일을 받은 회원들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핸드폰번호, 주소, e-mail)를 직접 수정하시거나 KOVA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 변경에 대한 안내

정관 제17조 (총회의 기능), 제19조 (총회의 소집)에 의거 2008년 3월7일 임시총회 결과 회비규모, 징계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명칭 변경등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비규모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운영규정 중 제 2장 회원
제 4 조 (정회원의 의무) 법인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 규정 및 법인이 결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② 별표 1의 회비를 납부 한다.
③ 별표 1의 회비 규모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2006년1월14일 일부개정)
(2008년 3월7일 일부개정/ 첨부파일 p29.홈페이지 참고)
부칙사항:
부칙1 : 귀국단원, 활동단원인 경우 월,연회비 가입한 자에 한하여 평생회원 전환시 금년 말 까지(08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평생회비를 적용한다.
(기존 평생회비, 300,000원 적용)
부칙2 : 2008년 3월7일 이후 적용되는 평생회비(500,000원) 납부 시 3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1회:200,000, 2회: 150,000원, 3회:150,000원)

2.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징계규정(p46)

제2장 회원의 징계
제3조(회원의 징계와 종류) ① 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정관 제9조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인 이사장이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징계를 행한다.(2008년 3월 7일 일부 개정)

제4조(윤리위원회)

- ① (2008년 3월 7일 삭제)
- ② 위원회는 이사 중 3인, 대의원 중 2인으로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임위원 전문가 1인 이상을 둔다.(2008년 3월 7일 일부 개정)
-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법인 이사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부에 소속한 상근직원 중 1인을 선임하여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케 한다.

제5조(징계 심의의 신청)

- ① (2008년 3월 7일 삭제)
- ② 회원의 탄원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가 소집되며, 소집된 위원회는 긴급히 논의 및 상담을 진행한다.(2008년 3월 7일 신설)
- ③ 위원장은 논의 및 상담 결과를 법인 이사장 또는 지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2008년 3월 7일 신설)
- ④ 법인 이사장 또는 지회장은 위원회의 논의 및 상담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징계 심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2008년 3월 7일 일부 개정)
- ⑤ 징계 심의 신청서에는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각호의 행위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2008년 3월 7일 신설)
- ⑥ 위원장은 징계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징계 심의 신청서 사본을 징계 협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8년 3월 7일 일부 개정)

2008년 4월 15일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이사장 고 기 복(직인생략)

신은애	오미혜	윤주영	이성미	이은주(26)	이호산	전희정	조마음	최민철	한정일
신주혜	오소임	윤준현	이성지	이은주(31)	이호연	정계옥	조민구	최선양	한종순
신준재	오수영	윤지영	이성호	이은주(37)	이화진	정기옥	조민국	최선화	한초롱
신찬수	오수진	윤진희	이세들	이은혜	이희경(31)	정다운(26)	조성민	최수영	한혜정
신현주	오영준	윤혜선	이세훈	이은희	이희경(39)	정다운(39)	조성호	최승명	함영선
신혜원	오은경	윤혜숙	이소영	이일택	이희선	정동기	조성희	최승영	허복려
신효영	오은영	이가은	이송이	이장주	이희숙	정명진	조연아	최연국	허진하
신효은	오인영	이강숙	이수일	이재석	이희자	정민성	조연옥	최연문	현민정
심규정	오지연	이경미	이수정(28)	이재영	임문광	정민지	조영신	최연석	현효정
심수진	오충석	이경숙	이수정(40)	이재왕	임아름(29)	정봉화	조영희	최연주	형정석
심수현	오 현	이경아	이수진(33)	이재현	임아름(40)	정상진	조윤희	최영주	홍경현
심재현	오현식	이경일	이수진(39)	이정림	임영규	정석한	조은경	최영희	홍선교
심진우	오현주	이경진	이수현	이정미(28)	임완혁	정성애	조은지	최윤선	홍선영
심화정	오호석	이계희	이숙경	이정미(35)	임 윤	정성호	조인옥	최윤섭	홍선영
안경인	오정숙	이계민	이순미	이정선	임정환	정세영	조정신	최은영	홍성필
안승권	왕승희	이근관	이순신	이정숙	임종윤	정소영(28)	조정현	최은옥	홍순승
안연지	용지현	이광열	이순영	이정순	임준	정소영(33)	조준만	최은진	홍은숙
안영희	우명심	이광욱	이순옥	이정욱	임한진	정소규	조진희	최은호	홍해정
안예주	우민정	이귀운	이승정	이정은	임현국	정은실	조하영	최재희	홍현우
안용건	우영덕	이기환	이승화	이정현(31)	임혜연	정은주	조호범	최정우	홍현태
안용준	우영숙	이기훈	이신우	이정현(35)	임혜진	정은지	조호식	최지연	홍희진
안은영	우은정	이길송	이연실	이정호	장경미	정의한	조희숙	최진실	황미진
안종섭	원대한	이나라	이영란	이정훈	장광숙	정 일	주민서	최진영	황선주
안지연	유미화	이대성	이영례	이제민	장근화	정정원	주소현	최진희	황소영
안현기	유미희	이동규	이영은	이종국	장미란	정지선(26)	주영재	최차석	황신희
안현진	유병화	이동주	이영출	이종우	장수진	정지선(26)	주정인	최태연	황아름
안혜영	유병훈	이동진	이영훈	이종훈	장애선	정지숙	주혜리	최필연	황원구
안효훈	유선미	이명희	이옥화	이주원(27)	장영일	정지혜	지선영	최 혁	황인선
양경민	유성열	이문종	이용하	이주원(35)	장윤현	정진희	지현석	최현정	황인성
양소영	유성주	이미선	이원배	이준석	장은주	정찬희	진성호	최현주	황인우
양승옥	유시현	이미혜	이원심	이지영	장형근	정충일	진희정	최희선	황자연
양용열	유영진	이민선	이유식	이지혜	장흥열	정태민	차은철	추현구	황정식
양태규	유재림	이민정	이윤미	이지아	전광혁	정해성	채서래	탁아람	황진연
양현주	유재성	이민준	이윤숙	이지희	전병인	정해인	천성애	편혜선	
양혜영	유종익	이민호	이윤영	이창숙	전세창	정향숙	천안나	표민혜	
여경찬	유지나	이병재	이윤정	이채영	전은경	정혜영	천종관	표세진	
엄양숙	유한선	이보연	이윤혜	이한국	전정란	정용기	천지영	하 영	일반회원
엄주용	유해선	이상덕	이윤희	이현경	전지은	정희숙	천창욱	하영미	
여윤경	유희진	이상문	이은숙	이현진	전춘영	조경애	최남희	하종일	김한도
여태영	윤남숙	이상미	이은영(26)	이현훈	전향숙	조경옥	최다경	하태일	류영일
연준흠	윤미경	이상윤	이은영(30)	이형일	전현주	조근영	최모희	한경은	정용우
염진원	윤미순	이상훈	이은정(26)	이혜리	전현태	조기호	최미나	한동석	최정도
예재희	윤석규	이선미	이은정(26)	이혜영(35)	전형준	조대식	최미라	한상민	
오근석	윤성민	이선주	이은정(35)	이혜영(39)	전효정	조두식	최미진	한신하	
오나연	윤세미	이성경	이은정(40)	이혜인			최민정	한재우	